

The Pearl of Torah

Matthew 21:1–11 through the Lens of Numbers 19:1–25:9 and Micah 5:7–6:8

Core Passage

Matthew 21:1–11 records Yehoshua's triumphal entry into Yerushalayim. He comes riding on a donkey, fulfilling prophecy, while the crowds proclaim,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 scene presents Him as both King and Servant.

핵심 본문

마태복음 21:1–11 은 예호슈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한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무리는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친다. 이 장면은 그분이 왕이시며 동시에 종이심을 보여준다.

Torah Layer — Numbers 19:1–25:9

The Red Heifer and Purification (Num. 19)

Before Yisrael could draw near to YHWH, impurity caused by death had to be removed. The ashes of the red heifer purified those defiled by contact with death.

Yehoshua enters Yerushalayim as the ultimate answer to death itself. The red heifer points prophetically to His sacrificial work outside the camp.

붉은 암송아지와 정결 (민 19 장)

이스라엘이 야훼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부정함이 제거되어야 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죽음에 접촉한 자들을 정결하게 했다.

예호슈아는 죽음 자체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희생을 예표한다.

The Bronze Serpent (Num. 21)

Yisrael was bitten by fiery serpents because of unbelief. Looking upon the bronze serpent brought healing.

The crowds look upon Yehoshua entering Yerushalayim, but many see only a political king. Only those who truly "look" with faith receive healing.

놋뱀 (민 21 장)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인해 불뱀에게 물렸다. 놋뱀을 바라본 자는 치유를 받았다.

무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호슈아를 바라보지만, 많은 사람은 정치적 왕만을 본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 참된 치유를 받는다.

Balaam's Blessing (Num. 24)

Balaam prophesied: "A Star shall come out of Ya'akov, and a Scepter shall rise out of Yisrael" (Num. 24:17).

The crowds unknowingly welcome the fulfillment of Balaam's prophecy as the Messianic King enters Yerushalayim.

발람의 축복 (민 24 장)

발람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예언하였다(민 24:17).

무리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발람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한다.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다.

Baal-Peor (Num. 25)

바알브올 사건 (민 25 장)

Yisrael's greatest danger was not military attack but spiritual compromise.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험은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영적 타협이었다.

The same Yerushalayim that cries "Hosanna" will shortly reject her King because many desired political deliverance more than covenant faithfulness.

“호산나”를 외치던 예루살렘은 곧 그 왕을 거부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신실함보다 정치적 해방을 원했기 때문이다.

Prophetic Layer — Micah 5:7–6:8

The Remnant Among the Nations (Mic. 5:7–9)

열방 가운데 남은 자 (미 5:7–9)

Micah describes a remnant that will be like dew from YHWH among the nations.

미가는 남은 자가 열방 가운데 야훼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을 것이라 말한다.

Yehoshua enters Yerushalayim not merely to reign over Yisrael but to gather a remnant from every nation.

예호슈아는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으기 위해 오신다.

Removal of Human Strength (Mic. 5:10–15)

인간의 힘 제거 (미 5:10–15)

YHWH promises to cut off horses, chariots, strongholds, idols, and sorceries.

야훼는 말과 병거와 요새와 우상과 점술을 제거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Yehoshua deliberately enters riding a humble donkey rather than a war horse, demonstrating the Kingdom of Heaven operates differently from earthly kingdoms.

예호슈아께서는 군마가 아닌 겸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하늘나라가 세상 왕국과 다르게 운영됨을 보여주신다.

YHWH's Lawsuit (Mic. 6:1–5)

야훼의 송사 (미 6:1–5)

YHWH reminds Yisrael of His faithfulness from Mitzrayim through Balaam's failed curse.

야훼께서는 애굽에서부터 발람의 저주가 무너진 사건까지 자신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신다.

The King entering Yerushalayim is the same Redeemer who delivered Yisrael from Mitzrayim.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왕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 구속자이시다.

What Does YHWH Require? (Mic. 6:8)

야훼께서 요구하시는 것 (미 6:8)

"Do justice,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your Elohim."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The donkey-riding Messiah perfectly embodies justice, mercy, and humility. 나귀를 타신 메시아는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완벽하게 나타내신다.

Hidden Connection

The movement from Numbers 19–25 reveals a pattern: purification, healing, kingship, and testing. 민수기 19–25 장은 정결, 치유, 왕권, 시험이라는 흐름을 보여준다.

Red Heifer → Purification from death. 붉은 암송아지 → 죽음으로부터의 정결.

Bronze Serpent → Healing through faith. 놋뱀 → 믿음을 통한 치유.

Star of Ya’akov → Arrival of the King. 야곱의 별 → 왕의 도래.

Baal-Peor → Testing of covenant loyalty. 바알브올 → 언약 충성의 시험.

Matthew 21 stands precisely at the transition between the King’s arrival and Yisrael’s testing. 마태복음 21 장은 왕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시험 사이에 정확히 위치한다.

PaRDeS

Level Insight

Peshat Yehoshua fulfills Messianic prophecy by entering Yerushalayim as David's King.

Remez The donkey hints at humility and the removal of earthly power described by Micah.

Drash The Red Heifer, Bronze Serpent, and Balaam's Star converge in the person of Messiah.

Sod The King enters Yerushalayim to confront the deeper impurity of death and rebellion that began in Eden.

단계 통찰

페샤트 예호슈아는 다윗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다.

레메즈 나귀는 미가가 말한 겸손과 세속 권세의 제거를 암시한다.

드라쉬 붉은 암송아지, 놋뱀, 야곱의 별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로 만난다.

소드 왕은 에덴에서 시작된 죽음과 반역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Final Synthesis

Matthew 21 is not merely a royal procession. It is the culmination of the journey begun in Numbers 19. The One foreshadowed by the Red Heifer, lifted 마태복음 21 장은 단순한 왕의 행진이 아니다. 이것은 민수기 19 장에서 시작된 여정의 절정이다. 붉은

up like the Bronze Serpent, announced by Balaam's Star, and anticipated by Micah's humble ruler now enters Yerushalayim. Yet the question remains the same as in Micah 6:8: Will the people walk humbly with their Elohim?

암송아지로 예표되고, 뱀처럼 들려지며, 발람의 별로 선포되고, 미가의 겸손한 통치자로 예언된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러나 미가 6:8 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할 것인가?

Pearl (The Hidden Treasure)

The crowds shouted, "Hosanna!" because they desired a king who would defeat Rome. Yehoshua came first as the Red Heifer to cleanse, the Bronze Serpent to heal, and the humble King to transform hearts. Many wanted deliverance from enemies; YHWH offered deliverance from death itself.

우리는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다. 그러나 예호슈아는 먼저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로, 치유하는 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많은 사람은 원수에게서의 구원을 원했지만, 야훼께서는 죽음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제공하셨다.

Mussar

We often welcome Yehoshua when He fulfills our expectations and resist Him when He challenges our idols. The true disciple receives the King not only when He conquers but also when He purifies, corrects, and humbles.

우리는 예호슈아께서 우리의 기대를 이루실 때는 환영하지만,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실 때는 저항한다. 참된 제자는 왕께서 정복하실 때뿐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에도 그분을 영접한다.